

정의의 종

Vol. 28 2016. 4

발행인 이원우 | 편집인 김종보
151-743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6866 | Fax 02-889-7196
<http://law.snu.ac.kr>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이 2월 29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150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들은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 2page

신규 교수 임용



임 용
조교수

우리대학은 2015년 9월 1일자로 조교수 1명을 신규 임용하였다. 신규 임용된 임용(林龍) 조교수는 경 제법 강의를 맡고 있다.

제1회 학봉상 논문공모 및 연구지원

서울법대 학봉상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학봉 장학회가 후원하는 학봉상이 올해 제2회 논문공모 연구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제2회 학봉상은 오늘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청년 실업, 세대 간 갈등, 한국 사회의 미래는?” 이라는 함축적 주제를 선정하였다.

논문 및 연구계획서 제출 기간은 2016년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총 상금은 1억원 내외이다.

문의

E-mail | hakbongprize@snu.ac.kr
우 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7동 209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학봉상 운영위원회사무국
전 화 | 02)880-2446
홈페이지 | http://law.snu.ac.kr/hb_award/

Contents

- 2 - 5 법대·법학대학원 소식
- 6 - 7 초청강연
- 7 - 11 연구소·센터소식
- 11 - 12 공개강좌 / 발전기금 출연현황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이 2016년 2월 29일 열렸다. 문화관 중강당에서 개최된 이 날 입학식은 교수소개, 식사, 기념강연, 축하공연, 고가제창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원우 원장은 신입생들에게 '비전을 갖출 것, 실력을 갖출 것, 훌륭한 인간 됨됨이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자신이 처음부터 지녔던 꿈과 비전을 간직하고, 파편적인 법지식을 넘어서 정의에 대한 신념, 통찰을 지니며,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과 자기비판, 너그럽고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김용담 한국법학원장(전 대법관)은 기념강연을 통하여 법률가의 본질과 자세에 대해 뜻 깊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용담 한국법학원장은 "법률가란 학연, 인연, 돈, 권력 등을 떠나서,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법의 원칙만을 사고와 행동의 표준으로 삼는 사람"이라며,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정리되고 공정하면서도 능률적인 법률가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법학전문대학 합창단 SPERO SPERA의 공연이 진행됐다. 일부 합창곡은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불러 많은 환호를 받았다. 입학식 이후에는 각 조별로 지도교수와 의 모임을 진행했다. 이번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은 법학전문석사 155명, 법학전문박사 14명으로 총 169명이다.

서울법대 12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2015년 9월 4일(금) 개학(開學) 120주년, 근대법학교육 1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당일 오전 기념전시회 「인물로 보는 서울법대 120년」을 시작으로, 학술대회 「근대법학교육 120년」, 서울법대인의 밤 행사가 차례로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 「근대법학교육 120년」은 9월 4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우천법학관(15-1동) 302호에서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법학교육 120년을 제도사적으로, 지성사적으로 고찰하고, 제2세션에서는 로스쿨과 학부의 법학교육을 다루었다. 이후 종합토론 시간에는 법원, 검찰, 로펌, 기업, 언론, 로스쿨 졸업생을 각각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참석하여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가 로스쿨체제로 전환된 지 7년, 이번 학술대회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기념 전시회 「인물로 보는 서울법대 120년」은 같은 날 오전부터 우천법학관(15-1동) 1층 로비에서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그 전신을 졸업한 동문 가운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공직에 진출하여 업적을 남긴 동문들, 그 외 법조, 교육, 경제, 사회,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동문들의 명단(약 670명)을 인포그래픽(infographic) 형태로 전시하였다. 동문들의 명단을 시대 순으로 나열하고, 동문들이 몸담았던 여러 직역을 색상으로 시각화한 이번 전시회는 전시회를 찾은 동문들 뿐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도 소속감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2015학년도 후기 법과대학 및 법학대학원 학위수여식



2015년 8월 28일 오후 3시,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법과대학·법학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법학박사 9명, 법학석사 31명, 법학전문석사 1명, 법학사 15명 등 총 56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원우 원장은 졸업식사를 통하여 "양극화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분 졸업생들은 대한민국 법학의 미래"라며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동건 법대 동창회장은 "오늘의 졸업식은 동창회로서도 모교와 함께한 120년 역사에서 중요한 한 페이지이기도 하다"며 "무한경쟁의 바다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이 굳은 신념과 능력을 겸비한 법학도로서 창의적이고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졸업생의 인사 순서에는 대학원 김현철('96) 졸업생과 학부 문병관('08) 졸업생이 대표로 나서 지난 학교생활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다. 졸업생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지켜라' 라는 법과대학의 모토를 가슴에 품고 정의, 인권, 법치주의 등의 원칙을 구현하며, 그동안 학생으로서 받았던 혜택을 사회에 갚아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 간담회



2015년 9월 8일 우천법학관 203호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장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는 천경훈 학생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봉옥 법무실장과 김대현 법조인력과장, 김승길 검사가 참석하였다.

봉옥 법무실장은 법무부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법무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국제 중재 등의 법무부의 국제업무, 법무부에서 설립한 공식신탁 등 법무실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어서 김대현 법조인력과장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과 합격률 등에 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제 1회 학봉상 시상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은 재일동포 실업가였던故학봉 이기학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1회 학봉상’ 시상식을 2015년 11월 12일 (목) 오전 11시 30분 법학전문대학원 서암관 대회의실(72동 415호)에서 개최하고, 논문공모 수상자와 연구지원 대상자에게 시상하였다.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은 재일동포 실업가였던故 학봉 이기학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학봉상을 제정하고, 2015년 제1회 학봉상 논문공모 및 연구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광복 70주년,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일 문화교류와 양국관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논문과 연구계획을 공모하였다. 한국과 일본 전문 연구자는 물론 일반 시민도 다수 지원하였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연구자,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연구자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학내외 저명인사로 학봉상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정운찬 前 국무총리)를 구성하여 응모논문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논문상 수상작과 연구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논문상 수상작]

- ▶ 요네즈 토쿠야, “일본인 중군기자의 한국전쟁 보도와 그 성격 - 한일 문화교류의 원점”
- ▶ 오카미 히로시, “한일공동선언 이후 문화·인적 분야의 교류 전개 - 일본에서의 한국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연구지원대상]

- ▶ 최은봉·박명희, “갈등적 프레임으로부터 소통형 담론 형성의 탐색 : 한·일간 대학생의 인식격차 요인 분석과 토론형 공론조사 방식을 통한 인식격차 축소”
- ▶ 혼다 미호, “한국의 일본어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 ▶ 이흥천·김미림·황선혜·이경은, “일본의 출판미디어에 있어 혐한인식 현상과 비판적 고찰”

법과대학은 이번 학봉상 논문공모 및 연구지원사업 자체가 한·일 문화교류의 한 형태로 양국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학봉상이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며, 올해에는 ‘청년실업, 세대간 갈등, 한국사회의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제2회 학봉상 논문공모 및 연구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논문 및 연구계획서 제출 기간은 2016년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총 상금은 1억원 내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새내기배움터



2016년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새내기 배움터가 열렸다. 이 날은 8기 신입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교수님들의 특강 및 선배 원생들의 학회 소개를 들을 기회가 주어졌다. 행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법학대학원 120년 역사 및 건물 소개, 학회 소개, 저녁 식사 및 레크리에이션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2016학년도 전기 법과대학 및 법학대학원 학위수여식



2016년 2월 26일, 전기 법과대학 및 법학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졸업식은 서울법대 교수진과 학부모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보 교무부원장의 학사보고, 학위수여 및 시상, 졸업식사, 축사, 졸업생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원우 원장은 졸업식사를 통하여 "사회로 첫 출발하는 이 때에, 졸업생들 각자가 자신이 처음 입학할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며 "다시 한 번 인생의 좌표와 궁극적 목표 등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것"을 권유하며 축하를 전했다. 또한 졸업생들이 우리사회에서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자 전도자로서 정의, 평화의 정신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동건 법대 동창회장 역시 축사를 통하여 졸업생들의 학위 수여를 축하하고, 졸업생들이 서울법대 졸업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라'는 모토를 일깨웠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법학박사 10명, 법학전문박사 3명, 법학석사 23명, 법학전문석사 158명, 법학사 29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법무법인 지평 도서기부협약식



2016년 3월 10일, '법무법인 지평 도서지원 기부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지평은 법학전문대학원 15동 5층 참고열람실에 비치할 도서에 대한 기금을 서울대학교법학발전재단에 기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참고열람실은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이용하는 15동 5층 열람실 옆의 공간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교과서, 판례, 주석서, 논문 등을 찾아보고 동료들과 토론하며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년에 조성된 서가다. 이번 법무법인 지평의 도서 후원으로, 앞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더욱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17동 205호에서 진행된 이번 기부협약식은 개회, 참석인사 소개, 협약기관장 인사말, 협약서 서명 및 교환, 폐회,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협약서 교환 이후에는 이날 참석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우 원장, 김종보 교무부원장, 천경훈 학생부원장과 법무법인 지평의 이공현 대표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정원 변호사가 직접 15동의 참고열람실을 방문하여 현판제막식을 진행했다.

이원우 원장은 "이번 후원으로 학생들이 더 깊이 있는 학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후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공현 대표변호사도 이번 기부협약이 법무법인 지평의 지향점과 가치를 실현하는 일환임을 설명하며, 이와 같은 후원이 학생들의 학업과 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전문가 초청강연

2015년 9월 7일, 제41회 '서울법대 초청강연'이 열렸다. 이날 강연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연사로 나서 '저 지평선 너머'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상민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참가자들의 선입견이나 틀에 박힌 사고를 뒤집을 수 있는 여러가지 그림과 일화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이 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꾸준히 할 것', '성벽을 허물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중시할 것', '함께할 것', '무엇을 하든 공익과 연계할 것',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할 것', '영감과 상상력을 자주 부추길 것', '저 지평선 너머를 볼 것' 등의 '7계명'을 삶의 원칙으로 소개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고시 존치 논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에 취지와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서는 법률에 예정된대로 2017년에 사법고시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공공성과 국가적 인재 육성의 차원에서 앞으로 장학금 확충 등의 보완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이날 강연에는 우천법학관 302호 좌석과 통로를 모두 메울만큼 많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참석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및 교수진들도 참여하였다. 또한 예정된 강연 시간보다 약 50분 정도 더 진행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Robert P. Merges 교수 초청강연

2015년 9월 9일 오후 5시,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버클리 로스쿨(UC Berkeley School of Law)의 Robert P. Merges 교수가 연사로 나선 제4회 전문가 초청강연이 열렸다. 이날 강연은 'Patent Law,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Global Economy in 2015'를 주제로 하여 1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법과대학 뿐만 아니라 경영대학 구성원 등도 참석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Robert P. Merges 교수는 "현대 제조업 및 IT분야의 혁신은 여러 기업들의 협업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고, 특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대기업에 홍보하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지적재산권 정책 및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정책은 이러한 중요성을 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책이 있다는 것과 정책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현실에서 얼마나 잘 실행하는가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초청강연

2015년 11월 24일, 제43회 서울법대 초청강연이 열렸다. 이날 강연은 나경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이 연사를 맡아 'Together We Can'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나경원 위원장은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에 대하여 '즐거라, 도전하라, 같이가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나 위원장은 "즐거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일을 소신있게 해야하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과 신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더하여 학창시절부터 주위의 사람들과 이러한 일을 같이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강연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이날 강연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 법률가와 정치인으로서의 자세, 법학교육제도 등과 관련된 여러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장시정 주함부르크 총영사 전문가 초청강연



2016년 3월 11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동 302호에서 전문가 초청강연이 열렸다. 연사는 장시정 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로, "독일과 한국의 경제모델: 비교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을 펼쳤다. 강연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장시정 총영사는 독일의 실용주의적 문화와 확실한 결과를 추구하는 독일의 산업전략을 소개하며, 한국 기업들이 이를 참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에 도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세계 경제는 디지털리제이션과 제4차 산업혁명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혁신기업들이 새로운 경제질서를 수립해 나갈 전망이다"라고 하며, 이러한 경제질서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장시정 총영사는 1981년 제15회 외무고시로 외교부에 입부한 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와 카타르 대사를 거쳐 현재 함부르크총영사로 재직중이다.

연구소·센터 소식

《채권법의 개정(RÉFORME DE DROIT DES OBLIGATIONS)》 국제학술대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2015년 8월 28일(금) - 29일(토) 양일간 '채권법의 개정'을 주제로 앙리카삐땅학회 한국지부, 한국민사법학회(프랑스민법연구회),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채권법과 관련하여 현재 프랑스에서는 의회에 개정시안이 제출되어 독회를 마친 상태이고, 일본에서는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개정작업을 마치고 여러 분야로 나누어 국회제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프랑스와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해, 우리 민법의 제정과 해석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그간 소개가 부족했던 프랑스민법은 물론 일본민법의 현 동향에 대해 채권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채권법 개정이 갖는 특징과 국제적 위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특히 2012년을 시작으로 한국, 프랑스, 일본간 법학교류의 창구역할을 수행 중인 앙리카삐땅학회(L'ASSOCIATION HENRI CAPITANT)와 협력하여 한국민사법학회 프랑스민법연구회가 3국의 개정 내용을 네 개의 주제로 나누어 번역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가능했다.

제3회 서울대 금융법센터 · 독일 부체리우스 · 일본 나고야 대학 공동 워크숍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에서는 2015년 9월 11일 '회사법과 증권법에 관한 최근 비교 법적 문제(Recent Comparative Legal Issues on Corporate Law and Securities Law)'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유럽금융법 및 자본시장법의 대가인 Kämmerer 교수와 Veil교수를 초청하여 유로에 기반한 유럽 금융 및 자본시장법의 최근 쟁점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일본회사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보이는 Matsunaka, Nakahigashi 교수와 캐나다법 전문가이지만 현재 일본 나고야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McGinty교수를 초청하여 일본의 비교법적 현황 및 법리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환경법센터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에서는 2015년 9월 11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양생물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모델 수립을 위한 법정책 전문네트워크 기반 구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국내·외 환경·에너지법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총 5차례의 환경에너지법정책포럼(제20차 'The Interlinkages of Crop Diversity and climate change: The Role of the multilateral system', 제21차 'The Role of Traditional · Local Knowledge of Coastal Community in Adapting to Climate Change', 제22차 'AOSIS and Climate Change', 제23차 'The Changing Role of Climate Change Law: What to Expect in COP 21 Paris', 제24차 'Regulatory and Energy Resource Planning for Electric Utilities in Hawaii')을 개최하여 환경·에너지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의 강연 자리를 마련하였다.

경쟁법센터 제4차 법 · 정책 세미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지난 2015년 9월 21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상 인종차별 규제의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4차 법·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대권·김대영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정성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윤진용 검사(공정위 법무보좌관), 신영수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자로 참여하였고, 심재한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난설현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진열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덕 박사(건설산업연구원)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서울대법학연구소 산하 '법이론 연구센터' 개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이원우)과 법무법인 울촌(대표 우창복)은 2015년 9월 2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 17동 617호 서암홀에서 '법이론 연구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법이론 연구센터는 서울대 법학연구소 산하에 설치됐으며,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초대 센터장으로 위촉됐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과 기초법 분야 석·박사 과정 연구생 등이 센터에서 연구한다. 울촌 송무 그룹 변호사들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울촌과 서울대는 센터를 통해 기초법 분야를 한국의 법적 현실과 문화에 맞춘 학문으로 성장 시키기로 했다. 또 법이론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외 법이론 센터들과 다양한 학술교류도 해나가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초연결사회 구현을 향한 법제도적 과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는 2015년 11월 27일 제12회 국제학술대회를 미국 하와이 Hyatt호텔에서 '사물인터넷(IOT): 초연결사회 구현을 향한 법제도적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Deirdre Mulligan 교수(UC Berkeley)가 'IoT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기반의 필요성(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Guido Noto LA DIEGA 박사(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가 '사물인터넷에 대한 영국의 시각(사물클라우드 의료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희정 교수(고려대학교)가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 목적과 방법의 모색', Hans-Heinrich Trute 교수(Universität Hamburg)가 '사물인터넷(IoT)-독일 관점에서의 제언', Commissioner Pierre-Jean BENGHOZI(ARCEP)가 '사물인터넷: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였다. 아울러 공익산업법센터에서는 2015년 11월 30일 저널 '경제규제와 법' 제8권 2호를 발행하였다.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심포지엄 주최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센터장 이효원 교수)는 2015년 12월 2일 수요일, 의정부예술의전당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법적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의정부지방법원과 공동주최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이효원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장이 '개성공단의 법제도와 과제', 박원규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개성공업지구 관련 민사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장소영 통일부 법률자문관이 '개성공업지구법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 장수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가 이에 대하여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FTA 통상규범과 지식재산권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는 2015년 1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FTA 통상규범과 지식재산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준석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에서의 지식재산권 조항'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김용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철희 팀장(산업통상자원부 FTA무역규범과 지재권협상팀), 박지현 교수(영산대 법대)가 'FTA 협정에서의 지식재산권조항'에 관해, 최정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양희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박정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성중 변호사(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가 'FTA와 지식재산권 분쟁 실무'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6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강연 및 Asia Pacific Law Forum Series 14



서울법대와 서울대학교 아시아 태평양법센터는 2016년 1월 27일, '제6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강연 및 Asia Pacific Law Forum Series 14'을 열었다. 호주 플린더스 로스쿨 Sanzhan Guo 교수의 이 날 강연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및 국제법과 국내법간의 연결(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Linkage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A case study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날 강연은 1990년대에 제정된 파리원칙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 국가위원회의 독립성을 검토하였다. Guo 교수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의 기준으로 제도적 독립성, 구성의 다양성, 임명 과정, 재정적, 기능적 측면의 관점을 제시하였고, 각 기준에 기반하여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평가하였다.

Guo 교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등급 보류'의 결정을 내린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조정위원회가 지난 2년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소개하며, 2016년 3월에 있을 국제조정위원회의 검토에 대한 전망을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분석,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6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통상·거래법센터는 2016년 2월 20일(토) 제6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경연대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산업통상자원부, (사)국제거래법학회, (사)국제중재실무회, (사)대한상사중재원, (사)서울국제중재센터 및 국내 법조계를 대표하는 로펌들인 법무법인 광장,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에이팩스,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총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에서 후원하였고, 국내 로스쿨 5개의 학생팀과 사법연수원팀이 영어 구두변론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 결과로 우승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Vino Lux Mea 팀, 준우승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rbistars 팀, 공동 3위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Guardians 팀과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Dikaios 팀에게 돌아갔다. Best Orator(최우수 변론상)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rbistars 팀 소속 오진우(남)가 수상하였다.

공개강좌

최고지도자과정 제24기 입학식



서울법대 최고지도자과정 24기 과정이 2016년 3월 8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진행되어 오는 8월 30일 수료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이번 24기 과정에는 법조인들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기업 임원 등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들 44명이 참가하고 있다.

금융법무과정 제9기 입학식



금융법무과정 제9기 입학식이 2016년 3월 2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주제는 '금융거래의 새로운 현상과 쟁점'으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실무담당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함양을 목표로 개설되었다. 이재민 기획부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맡아 전하였고 김진식 교수의 특강으로 이번 9기가 시작되었다.

날짜	이름	금액	용도	날짜	이름	금액	용도
2015-07-10	(유)도성개발	1,000,000	학술	2015-12-09	고광우	30,000,000	학술
2015-07-13	후원자00065	5,000,000	장학	2015-12-10	(유)도성개발	1,000,000	학술
2015-07-13	이원우	10,000,000	위임	2015-12-14	SNU WIPO	2,339,840	장학
2015-07-20	박미례	10,000,000	장학	2015-12-15	SNU WIPO	561,110	장학
2015-07-22	SNU WIPO	13,629,510	위임	2015-12-16	ALP22기	30,000,000	위임
2015-07-28	전일호	10,000	학술연구시설등	2015-12-22	남효순	750,000	공익번호사지원
2015-07-28	최지석	10,000	학술	2015-12-22	안인희	30,000,000	학술
2015-08-10	(유)도성개발	1,000,000	학술	2015-12-22	한인섭	750,000	공익번호사지원
2015-08-20	서업학술장학재단	9,750,000	장학	2015-12-22	이효원	750,000	공익번호사지원
2015-08-25	이범재	1,000,000	학술	2015-12-22	정인섭	750,000	공익번호사지원
2015-08-25	김종보	3,900,000	위임	2015-12-23	나경원	286,800	위임
2015-08-25	한화자산운용	37,000,000	장학	2015-12-27	최병조	1,000,000	학술
2015-08-25	한화생명보험(주)	37,000,000	장학	2015-12-28	한인섭	2,000,000	공익번호사지원
2015-08-26	한화호텔앤드리조트	37,000,000	장학	2015-12-29	최지석	10,000	학술
2015-08-26	한화손해보험(주)	37,000,000	장학	2015-12-29	전일호	10,000	학술연구시설등
2015-08-26	한화케미칼(주)	37,000,000	장학	2015-12-31	법무법인 바른	150,000,000	위임
2015-08-26	한화첨단소재(주)	37,000,000	장학	2015-12-31	법무법인 화우	350,000,000	위임
2015-08-26	전일호	10,000	학술연구시설등	2015-12-31	(재)송복은장학재단	12,000,000	장학
2015-08-26	한화투자증권	37,000,000	장학	2015-12-31	법무법인 (유한) 바른	50,000,000	학술연구시설등
2015-08-26	최지석	10,000	학술	2016-01-11	(유)도성개발	1,000,000	학술
2015-08-27	(주)한화건설	37,000,000	장학	2016-01-21	학봉장학회	20,000,000	학봉상기금
2015-08-27	한국도선사협회	25,000,000	장학	2016-01-26	전일호	10,000	위임
2015-08-31	(주)영풍FILLTEX	4,446,000	장학	2016-01-26	최지석	10,000	학술
2015-08-31	청명피앤엘(주)	6,696,000	학술	2016-01-26	육지희	10,000	위임
2015-09-01	(주)한화갤러리아	37,000,000	장학	2016-02-05	학봉장학회	10,000,000	학봉상기금
2015-09-01	(주)한화	37,000,000	장학	2016-02-11	(유)도성개발	1,000,000	학술
2015-09-09	법무법인 율촌	1,000,000	학술	2016-02-17	ALP23기	30,000,000	위임
2015-09-10	(유)도성개발	1,000,000	학술	2016-02-17	청명피앤엘(주)	6,673,000	학술
2015-09-14	윤진수	3,000,000	위임	2016-02-22	(주)영풍FILLTEX	6,673,000	장학
2015-09-18	유진성	50,000	학술	2016-02-23	(주)한화	18,000,000	장학
2015-09-21	진동수	1,000,000	장학	2016-02-23	법무법인지평	50,000,000	도서
2015-09-22	모금-23	156,000,000	위임	2016-02-23	청파장학재단	6,673,000	장학
2015-09-24	천경훈	6,000,000	위임	2016-02-24	(주)한화	18,000,000	장학
2015-10-02	최지석	10,000	학술	2016-02-24	한화생명보험(주)	18,000,000	장학
2015-10-02	전일호	10,000	학술연구시설등	2016-02-24	한화석유화학(주)	18,000,000	장학
2015-10-12	(유)도성개발	1,000,000	학술	2016-02-24	(주)한화갤러리아	18,000,000	장학
2015-10-27	최지석	10,000	학술	2016-02-24	한화에너지(주)	18,000,000	장학
2015-10-27	전일호	10,000	학술연구시설등	2016-02-24	한화자산운용	18,000,000	장학
2015-11-02	학봉장학회	6,000,000	학봉상기금	2016-02-24	한화증권	18,000,000	장학
2015-11-03	학봉장학회	15,000,000	학봉상기금	2016-02-24	한화엘앤씨(주)	18,000,000	장학
2015-11-04	91 학번	70,000,000	장학	2016-02-26	최지석	10,000	학술
2015-11-05	임한홍	1,000,000	학술교류기금	2016-02-26	전일호	10,000	위임
2015-11-10	이원우	10,000,000	위임	2016-03-09	한화손해보험(주)	18,000,000	장학
2015-11-10	(유)도성개발	1,000,000	학술	2016-03-14	법무법인 세종	3,340,000	장학
2015-11-11	정인섭	1,000,000	학술교류기금	2016-03-17	이원우	10,000,000	위임
2015-11-18	이재민	1,000,000	학술교류기금	2016-03-18	이승요	500,000	학술
2015-11-26	육지희	10,000	학술연구시설등	2016-03-18	김지이나	500,000	학술
2015-11-26	전일호	10,000	학술연구시설등	2016-03-21	안인희	21,000,000	장학
2015-11-26	최지석	10,000	학술	2016-03-23	한국도선사협회	35,000,000	장학
합 계				1,780,198,260			

